

먹거리 가격 줄줄이 인상...가정의 달 외식부담 가중

광주 김밥·비빔밥·김치찌개 등 평균 가격 1년 전보다 9% 넘게 올라 저가 커피 브랜드 200~500원 인상...맥도날드 피자헛도 인상 예고 가공식품에 설탕 등 필수 조미료도 두자릿수 ↑ ...고물가 고통 심화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되면서 가계부담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특히 가정의 달 특성상 외식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최근 가공식품은 물론 조미료 가격이 눈에 띄게 오른 데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도 고물가를 핑계로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시민들의 걱정이 커져가고 있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 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김밥과 비빔밥, 김치찌개 등 대표 외식 품목 8개의 광주 지역 평균 가격은 1년 전보다 9% 넘게 올랐다.

광주에서 1년 전과 비교해 가격 인상이 가장 많았던 메뉴는 김밥으로, 한 줄에 무려 9.15% 오른

3340원이다.

짜장면은 7.9% 오른 6800원, 비빔밥은 9900원으로 6.4% 올랐다.

이달에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본격적으로 가격 인상에 나섰다.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은 지난 9일 메뉴 가격을 100~500원 인상해 대표 메뉴인 바르다김밥 가격이 43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다. 앞서 김가네는 지난해 하반기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는 지난 15일 9개 메뉴 가격을 일제히 1900원씩 올렸다. 이에 따라 대표 메뉴인 고추바사삭 가격은 1만9900원으로 2만원에

육박했다.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인 더벤티는 지난 22일부터 카페라떼 등 음료 7종 가격을 200~500원 올렸다. 다만,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아메리카노 가격은 동결했고 바닐라크림 폼드브루 등 음료 3종 가격은 100~300원 인하했다.

햄버거와 피자 등의 가격도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맥도날드는 다음 달 2일부터 16개 메뉴 가격을 평균 2.8% 올리기로 했다. 버거 단품 중 햄버거, 치즈버거, 더블 치즈버거, 트리플 치즈버거는 100원씩 올리고 불고기 버거는 300원, 에그 불고기 버거는 400원 각각 인상한다.

빅맥과 맥스피이스 상하이 버거 단품 가격은 동결되지만, 탄산음료와 사이드 메뉴 가격이 올라 세트 가격은 6900원에서 7200원으로 300원 오른다.

피자헛도 같은 날부터 갈릭버터쉬림프, 치즈킹 등 프리미엄 메뉴 가격을 올린다. 인상 폭은 추후

공지하기로 했다.

앞서 고피자도 지난달 피자 단품 가격을 1000원씩 올려 페퍼로니 피자를 8900원(매장 기준)에 판매하고 있다.

외식업체들은 재료비와 인건비 등 제반 비용 상승에 따라 메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식업체뿐 아니라 식품 기업의 가격 인상 움직임도 주목된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이 대형마트·슈퍼마켓·백화점·편의점 등 4개 유통 채널 500여개 점포 판매가를 집계한 생필품 가격 보고서에 따르면 이달 가공·신선식품을 포함한 먹거리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크게 올랐다.

우선 필수 조미료 가격이 급등했다.

백설 자일로스 설탕(1kg)은 지난해보다 29.7% 비싸졌다. 큐원 하얀설탕(1kg·26.4% ↑), 백설 하얀설탕(1kg·14.3% ↑) 등의 가격도 줄줄이 올랐다.

청정원 미원 맛소금(500g), 해표 꽃소금(1kg), 백설 구운소금(500g) 등 소금류도 19~25%의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해표 순창콩 양념참장(500g·17.2% ↑), 해찬들 재래식된장(1kg·16.2% ↑)과 같은 장류를 살 때도 부담이 커졌다.

가공식품의 경우 주부9단 슬라이스햄(100g·18.2% ↑), 동원 심심맛살 실속(500g·16.5% ↑), 더 건강한 그릴후랑크(600g·6.2% ↑), 농심 신라면 큰사발면(114g·5.1% ↑), 동원참치 라이트스탠더드(150g·7.1% ↑) 등이 오름세를 보였다.

한 경제전문가는 "가계 수입은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외식비를 필두로 먹거리 가격이 오르면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과일, 채소 가격도 잡히지 않아, 시민들이 체감하는 고통가 상황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털어도 털어도 쌓이는 부실채권...은행권 '팬데믹 특수' 끝났다

5대 은행 연체율 2019년 수준으로 ↑ ...건설업은 1%대로 치솟아

고금리 장기화 속에 가계와 기업 자금난이 가중되면서 은행권 자산 건전성도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주요 은행들의 대출 연체율은 부문별로 일제히 상승했다. 특히 가계보다는 기업이, 기업 중에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체율을 기록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단순 평균 대출 연체율은 0.32%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0.27%)는 물론 전 분기(0.29%)보다도 눈에 띄게 높아졌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분기 말과 4분기 말에 각각 0.24%, 0.26%에서 올해 1분기 말 0.28%로 상승했다. 지난 2월 말에는 0.32%까지 오르기도 했다.

기업 부문은 상황이 더 나빴다.

기업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분기 말 0.30%에서 4분기 말 0.31%로 소폭 상승한 뒤 올해 1분기 말 0.35%로 뛰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은 각 0.34%, 0.37%, 0.41%로, 대기업은 각 0.03%, 0.05%, 0.07%로 연체율이 올랐다.

일선에선 이른바 '팬데믹 특수'가 끝났다는 데 주목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오른 연체율이 2019년 당시와 비슷해졌다"며 "저금리로 유통성이 풍부했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연체율이 낮아졌다가 다시 금리가 오르면서 코로나19 이전(2019년 1분기 말 기준 대출 연체율 0.33%) 상황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업 부문에서는 건설업 연체율이 유독 높은 상

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건설업종 내 한계기업이 속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행을 제외한 4대 은행의 1분기 말 기준 단순 평균 건설업 연체율은 0.78%로, 전년 동기(0.37%)의 2배 이상으로 집계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 1분기 일부 건설사 등의 워크아웃을 중심으로 부실 채권이 증가하고 연체율이 상승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차주들의 연체가 급속히 늘면서 은행들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공격적인 상·매각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부실 채권이 쌓이고 있다.

5대 은행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단순 평균 고정 이차여신 비율은 0.28%로, 지난해 1분기 말의 0.27%보다 0.01%p 상승했다.

가계 부문은 0.17%에서 0.18%로, 기업 부문은 0.31%에서 0.33%로 나란히 고정이차여신 비율이 확대됐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현대화사업 워크숍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는 지난 25일 '영·섬유역본부 현대화사업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워크숍에는 영·섬유역본부 내 전남·북도, 제주도 현대화사업 담당자 40여명이 참석해 지역별 현대화사업 진행상황과 주요 추진성과를 발표하고 건설현장 안전혁신 추진내용 등을 공유했다. 또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과 해당 지자체와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예

산을 지원해 노후된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상수도 구간별 관리시스템을 구축,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이 각 가정에 도달하기까지 버려지는 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주인호 영·섬유역본부장은 "항후 물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예상되는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도전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줄 것"이라며 "땀 상류부터 수도꼭지까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국민 물복지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비스포크 AI 스티م' 청소기 출시 25일만에

누적판매 1만대 돌파

삼성전자는 지난 3일 선보인 '비스포크 AI 스티م' 로봇청소기(사진)가 출시 25일 만에 누적 판매 1만대를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비스포크 AI 스티م은 청소기 한 대로 먼지 흡입과 물걸레 청소, 자동 세척, 스티م 살균까지 가능한 제품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선보인 물걸레 스티م 살균 기능과 한층 업그레이드된 인공지능(AI) 기능이 인기 비결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물걸레 스티م 살균 기능은 물걸레를 1차로 고온 스티밍과 물로 자동세척 한 뒤 2차 세척 100도의 스티밍 살균을 통해 각종 세균을 없애고서 열풍 건조로 물걸레를 말려준다. 또 AI 바닥 인식 기능으로 바닥 환경을 구분해 맞춤 청소가 가능하고, AI 사물 인식 기능은 다양한 사물을 인식하고 회피한다.

앞서 삼성전자가 지난 2월 출시한 올인원 세탁 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도 판매 1만대를 돌파



한 바 있다.

황태환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앞으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경험을 소비자에 지속 제공

하며 'AI가전 = 삼성' 공식을 넘어 '모두를 위한 AI' (AI for All) 비전 완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중기중앙회 컨설팅비용 지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을 지원하는 '2024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단체표준 제정이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과 자체 역량 부족으로 표준 제정에 애로를 겪는 협동조합에 전문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스마트 농업 분야 사물인터넷(IoT), 자연·경제적, 노면 표시, 리튬이온전지 재활용 등에 대한 단체표준 개발과 제정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조합당 1개 단체표준 제정을 원칙으로 조합 자체 부담금 30%를 포함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김민석 기자 mskim@

정부, 성장률 전망 상향조정 나선다

2%대 후반까지 저울질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 크게 웃돌면서 정부도 연간 '성장 눈높이'의 상향조정에 나선다.

연초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2.2%를 높이는 방향성은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4~5월 실물경기 흐름을 보고 통상 6월 하순 이뤄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수정지를 내놓는 스키타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폭 높인다는 데에는 폭넓은 공감대가 이뤄진 분위기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1.3%(속보치) 증가하면서 시장 컨센서스(0.6%)를 뛰어넘은 데 따른 것이다.

당초 기재부는 GDP가 분기별로 대략 0.5~0.6%씩 불어난다는 시나리오 하에서 연간 2.2% 성장률을 내놓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1분기에 0.7~0.8%포인트 초과 성장한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연간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기재부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예상경로를 고려하면서도 연간 성장률이 2.5%를 웃돌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2%대 후반까지 열어두고 있다는 뜻이다.

극단적으로 2~4분기 모두 0%로 '제로 성장' 이어지는 시나리오에서도 연간 성장률은 2.3% 정도로 추정된다.

국내·외 투자업계 시선도 다르지 않다.

지난 25~26일 국내 10개 증권사(한국투자·SK·KB·하나·메리츠·유진투자·상상인·삼성·하이투자·신한투자) 리서치센터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2.4%로 집계됐다.

1분기 GDP 발표 직전 전망치(평균 2.1%)보다 0.3%포인트 상향조정된 수치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빛그린 산단 물류시설용지 토지리턴제 공급

LH 광주전남지역본부

LH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정수미)는 빛그린 국가산업단지(함평군 월야면) 2단계 물류시설용지 5필지를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급가격은 3.3㎡당 약 76만원으로 인근 물류시설용지인 평동3차(157만) 대비 52%, 진곡산단(124만) 대비 39% 저렴하며, '토지리턴제'를 적용한다. 토지리턴제란 매매계약 체결 후 일정기간 동안, 매수자가 원할 경우 계약금 귀속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한 제도다.

이번에 공급하는 부지는 함평군 월야면 외지리

일원으로 407만㎡의 대규모 산업단지다. 산단은 자동차 산업, 디지털정보기전, 광산업, 첨단부품소재 업종 등 다양하게 들어서 있다.

토지 분양신청 및 신청예약금 납부는 오는 5월 7일 오전 10시부터 5월 10일 오후 4시까지 LH청약플러스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토지 공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내 '토지리턴제'를 적용한다. 토지리턴제란 매매계약 체결 후 일정기간 동안, 매수자가 원할 경우 계약금 귀속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한 제도다.

이전에 공급하는 부지는 함평군 월야면 외지리

'스마트공장 재직자 심화과정' 교육생 모집

중진공 호남연수원 내달 3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은 오는 5월 3일까지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거나 예정인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2024년 스마트공장 재직자 장기심화과정'에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스마트공장 재직자 장기심화과정은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 연수과정으로 ▲도입전략 ▲데이터분석 ▲제조자동화 ▲운영관리 4가지 분야로 운영되며 모집인원은 350명이다.

교육과정은 ▲오리엔테이션(6시간) ▲온라인 연수(40시간) ▲오프라인 실습(8시간) ▲현장 프로젝트(96시간) ▲결과보고회 및 수료식(10시간) 등 총 4개월, 160시간으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는 스마트공장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온라인 교육과 중진공에서 운영중인 6개 스마트공장 배움터를 활용한 실습교육으로 진행된다. 또 스마트공장 전문가를 기업 현장에 파견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교육생이 주도하여 개선과제를 수행하는 현장 프로젝트도 실시한다.

특히, 교육품질 향상을 위해 현장 프로젝트의

비중과 전문가 현장방문 횟수를 확대하는 등 운영 방식을 개편했다. 또 기존에 장기심화과정을 수료한 교육생도 타 교육분야로 재신청이 가능하고 교육 종료 후 사후관리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신청은 중소벤처기업연수원 누리집(https://sbti.kosmes.or.kr)에서 가능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로도복권 (제 1117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3	4	9	30	33	36	7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3,028,385,542	9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48,325,302	94
3	5개 숫자일치					1,437,071	3,161
4	4개 숫자일치					50,000	155,379
5	3개 숫자일치					5,000	2,567,618